

12월8일~2011년 2월27일 광주전

# 키스해링展은 웰메이드 축제

키스 해링(1958~1990)의 사후 20주기를 맞아 열리는 ‘팝아트 슈퍼스타, 키스 해링전’(12월8~27일·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은 차별화된 명품전시다. 작품과 공간연출,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가 조화를 이룬 완성도 높은 ‘웰메이드 종합축제’이기 때문이다. 문화중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품격의 전시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던 미술애호가들에게는 올 겨울 최고의 문화선물이 될 듯 하다.

## 자연과 예술 어우러진 공간연출

이번 광주전은 80년대 팝아트의 전성기를 이끈 키스 해링의 예술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설레게 한다. 지난 6월~11월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잇따라 열린 전시회에는 무려 20여 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광주전에서는 그의 대표작 ‘관화’와 조각, 영상 자료 등 150점이 선보인다. 아시아에서 열리는 전시로는 최대규모다. 여기에는 탄생과 죽음, 인권, 전쟁 등의 목격한 주제를 특유의 유패한 이미지로 풀어낸 ‘남아프리카에 자유를’, ‘회상’, ‘침묵=죽음’, ‘아이콘’, ‘팝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전시회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세련된 공간연출이다. 전시장인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

관(광주시 서구 농성동 311-1)은 도심속 미술관이다. 옛 전남도지사 공관을 리모델링한 덕에 여느 미술관을 처럼 위압적이지 않고 편안하다. 특히 상록근린공원에 위치한 입지적 조건은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미술관에 들어서면 정원에 조성된 울동감 있는 키스 해링 이미지의 조형물이 관람객들을 맞는다. 전시장은 크게 6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실크스크린, 관화, 에칭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과 사진자료들로 꾸며진다. 또한 그의 일상과 작업과정을 생생하게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Drawing the Line’이 상영돼 작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80일, 매일매일이 ‘이벤트 데이’

약 80일동안 펼쳐지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풍성한 이벤트가 곁들여져 재미를 더한다. 12월의 하이라이트는 크리스마스 이벤트. 오는 24~25일에는 당일 관람객 가운데 선착순 300명에게 대형 키스 해링 전시기념 포스터(1인1매)를 증정한다. 내년 2월2일과 2월 4일(설날 당일은 휴관)에는 선착순 100가족과 3대가족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키스해링 전시도록과 3만5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내년 2월14일 발렌타인 데이에는 커플단위 관람객 가운데 선착순 214커플을 선정해 키스 해링 커

플 휴대폰 고리를 증정하며 생일을 맞은 관람객(신분증 지참)에는 2만5천원 상당의 아트포스터를 전달한다. 또한 평일 오전(오전 10시30분~12시) 입장 관람객에게는 대형 전시포스터를, 1만, 2만, 3만, 4만 번째 입장관람객에게는 2만5천원 상당의 아트포스터를 제공하는 ‘럭키 날버데이’를 진행한다. 또한 6만, 7만, 8만, 9만번째 입장객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원목의자를 주며 10만번째 입장 관람객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 상품권을 제공한다.

##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장’

전시기간동안 다문화 가정, 장애우 등 소외된 이웃들을 초청해 공연과 체험프로그램등의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특히 입장수익의 일부는 유니세프를 통해 지구촌의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관람시간은 화·수·목·일요일의 경우 오전 10시 30분~오후 7시까지, 금·토요일은 오전 10시30

분~오후 9시까지이다. 입장료는 성인 1만원, 중·고생 8천원, 어린이 6천원이며 만 4세 미만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무료. 단체 관람객(20인 이상)의 경우 성인 8천원, 중·고생 6천원, 어린이 4천원이다. 문의 (062)613-5396, www.kwangju.co.kr, www.haring.co.kr /박진현 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무제’



‘무제’



‘아이콘’



‘팝업’

(사진제공=키스 해링 재단)

## 거리의 낙서, 예술이 되다

키스해링, 80년대 지하철 그래피티미술 이끌어

무분별한 낙서는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 하지만, 기발한 상상력과 메시지가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뉴욕의 지하철은 스프레이 물감으로 칠해진 이상한 그림들로 넘쳐났다. 그래피티(graffiti art) 또는 스프레이 캔 아트(spray can art)로 불리는 낙서미술이다.

그래피티 미술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다. 하지만 낙서미술이 현대미술로 당당히 자리잡게 된 데에는 80년대 거리문화화를 이끈 팝아티스트 키스 해링의 공이 크다.

명문 뉴욕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 출신인 그가 거리의 화가를 자처한 이유는 더 넓은 세상 속으로 나가고 싶어서였다. 남들이 부러워 할 만한 ‘졸업장’을 꿰찼으니 컬렉터와 큐레이터, 비평가들의 ‘비위’만 맞추면 부와 명예를 거머쥌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링은 화려한 갤러리나 미술관을 뒤로 한채 거리를 전전했다. 뉴욕지하철은 하얀 캔버스가 대신할 수 없는 최적의 ‘공간’이었다. 빛을 발산하는 야기, 명명 짓는 개의 이미지는 단숨에 뉴욕의 아이콘이 됐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해링은 소통의 전도사로 나섰다. 자신의 ‘분신’들을 조그만 배지에 그려 넣어 시민들에게 나눠주었다. 그의 배지를 단 사람들은 초면일지라도 반갑게 손을 들며 인사를 나눴다. 마치 오랜만에 만나는 벗이나 이웃처럼. 이게 바로 해링이 꿈꿨던 더불어 사는 세상이었다.

해링의 ‘친구들’이 거리를 누비면서 그를 찾는 화랑과 미술관들도 늘어났다. 미국은 물론 유럽, 호주,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러브콜이 쏟아졌다.

해링의 이미지들이 일시적인 눈요깃거리에 그쳤다면 명성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하철 벽면에 새긴 사랑과 평화, 인권 등의 사회적 이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특히 그는 ‘미술은 어렵고 고상해야 한



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어린이가 아무렇게 그린 낙서같지만 강렬한 원색과 간결한 선은 편안함을 주었다.

올해는 해링이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미술의 엘리트주의에 맞서 시각미술을 대중의 일상으로 끌어 들인 업적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낙서로 사회의 관습과 편견에 맞선 그의 ‘아름다운 청년정신’은 불후의 명작으로 남았다.

/박진현 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회상’(Retrospect·1989년 작)

(사진제공=키스 해링 재단)

**홍스페이스 상무점 오픈**

**앤틱-100% ITALY 다기능 좌탁**

**앤틱-100% ITALY 다기능 식탁**

**클래식-100% ITALY**

**세미모던-100% ITALY 사또닥스**

서구 화정동 307-1 **화정동사거리** 구, 안기부 대로변 푸조전시장 400평 062-382-0022  
 동구 장동 58-15 **문화전당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062-226-7567 SINCE 1990

**특별한 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화순 이리스파크**

창을 열면 청정 수목원, 문을 나서면 민연산 푸른빛 환경이 빛나는  
**푸른숲 전원주택을 만나보십시오.**

1단지 2단지

**警晶産業開發(株) | TEL 062-385-1013·1014**  
 HYUNJOUNG INDUSTRIAL DEVELOPMENT INC